

연말특집 ②

속담.명언.유행어로 보는 국민생각

■ 개인, 자아 형성에 대한 생각

- _ 개인의 인생에서 출생배경과 가정환경 중요하다고 생각
- _ 4060세대 가정환경 더 중요시 / 20대, 개척론에 더 동의
- _ 4060세대,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노력 모두 동의

■ 사회,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

- _ 불공평한 세상으로 생각하면서도 ‘노력’에 따른 희망 가져
- _ 모든 계층에서 사회인식 부정적 / 2030여성, 성차별 민감
- _ ‘노력’에 대한 믿음, 60대이상과 보수층 특히 강해

■ 사회생활(처세)에 대한 생각

- _ 다양한 사회생활 규칙들, 복합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 _ 성/연령별 규칙 동의 수준 다르고, ‘규칙 공유’ 생각 낮아
- _ 현재를 사는 규칙, 모순된 규칙이 함께 통용되고 있어

■ 사회생활 경험 평가

- _ 부정적 평가보다, 긍정적 평가 확고한 우위
- _ 사회생활 경험 부정평가,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_ 사회생활 경험 긍정평가, 5060세대 특히 높아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2월 2일(금) ~ 12월 4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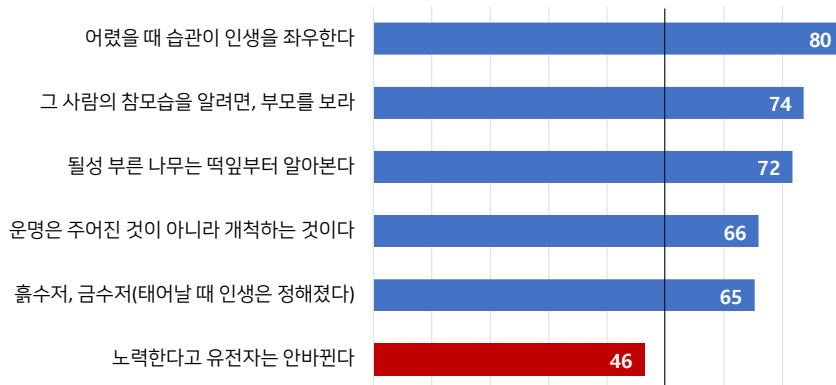
개인, 자아 형성에 대한 생각

개인의 인생에서 출생배경과 가정환경 중요하다고 생각

- 이번 조사는 우리사회에 유통되는 속담, 명언, 유행어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해 국민들의 가치관 등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기획함
 - 조사항목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 따라 ① 개인의 자아 형성, ② 사회에 대한 인식, ③ 행동(처세), ④ 행동에 대한 결과 평가 등으로 마련함
- 먼저, ‘개인, 자아 형성에 대한 생각’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인생에서 출생배경과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어렸을 때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며(80%),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려면, 부모를 보라’는 말에 동의하고(74%),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와 ‘흙수저, 금수저(태어날 때 인생은 정해졌다)’ 말에 동의하고 있음(각각 72%, 65%)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50% 기준선임
- 한편으로 ‘운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하고(66%), ‘노력한다고 유전자는 안바뀐다’ 말에 낮은 동의도를 나타냄(46%)

‘개인, 자아 형성에 대한 생각’ 관련 속담 등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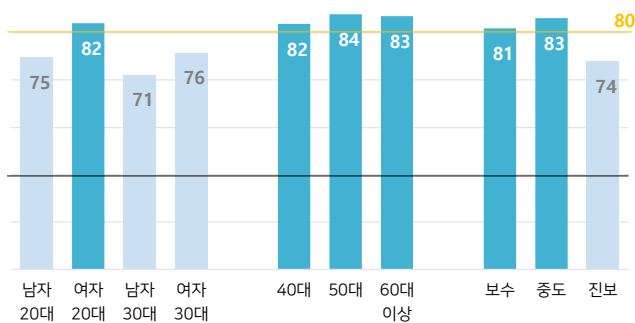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영·유아기에 형성되며, 이때의 기본성격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강화된다고 함
 - : 그만큼 출생배경과 부모에 의해 조성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알려짐
- ☑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역시 개인의 인생에서 출생 배경과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어렸을 때 습관, 부모, 될성 부른 나무, 흙수저·금수저 등은 모두 이러한 측면에서의 격언들이고, 이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도를 표하고 있음
- ☑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
 - :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유전자는 안바뀐다는 격언에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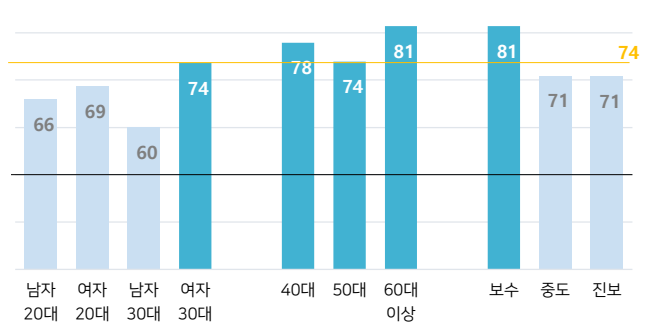
□ 4060세대 가정환경 더 중요시 / 20대, 개척론에 더 동의

- 가정환경 관련 격언에 대한 계층별 동의도를 살펴보면, 4060세대가 더 높은 비중으로 동의를 포함
 - “어렸을 때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에 406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보임
 - 이에 비해 203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나타냄(단, 여자20대 제외)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옅은 막대로 표시함
 -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려면, 부모를 보라”는 말에 대해서도 4060세대의 동의도가 높고, 2030세대는 낮음
 - 이념별로는 두 격언 모두 보수층의 동의도가 높고, 진보층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태어날 때 인생은 정해졌다(흙수저, 금수저)는 응답이 높으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줄어듦
 - ‘흙수저, 금수저’에 동의도가 높은 30대 남녀와 4050세대는 운명 개척 주장에 동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반대로 ‘흙수저, 금수저’에 동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남녀와 60대이상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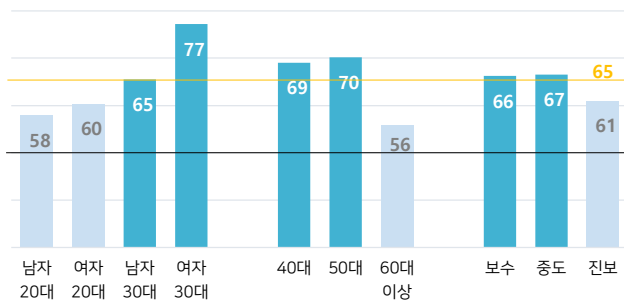
"어렸을 때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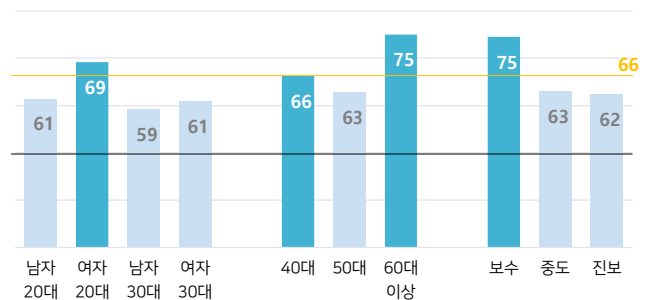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려면, 부모를 보라" 계층별 동의도 (단위:%)



"흙수저, 금수저(태어날 때 인생 정해졌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운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 계층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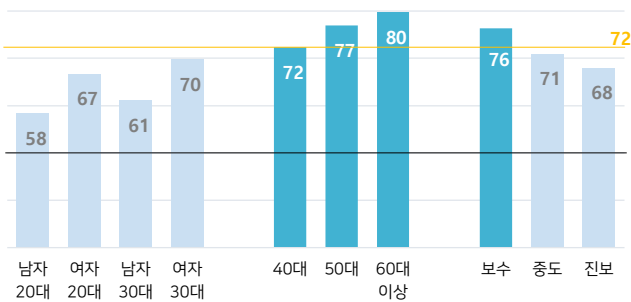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출생배경 및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성/연령과 이념에서 높은 수준의 동의도를 포함
 - : 그만큼 우리국민들은 출생 시점에 이미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강함
- ☑ 이러한 흐름에 20대 남녀와 60대이상은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음
 - : 20대 남녀와 60대이상은 ‘흙수저, 금수저’ 격언에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기록하고(각각 58%, 60%, 56%), 운명 개척 격언에 높은 동의도를 나타냄(각각 61%, 69%, 75%)
 - : 30대 남녀는 결정론에 강하게 동의하면서 개척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표하는 등 20대와 뚜렷이 대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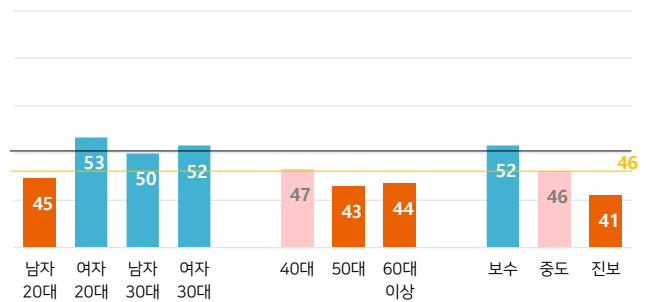
□ 4060세대,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노력 모두 동의

-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선천적 능력 관련 격언(‘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에 모 든 계층이 50% 이상의 동의도를 기록함
 - 406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기록했고, 203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나타냄
 -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국민전체보다 높고, 중도·진보층은 국민전체보다 낮음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임 / 동의도가 50%이상이면 푸른색 막대,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임 / 또한 동의도가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옅은 막대로 표시함. 단, 국민전체 동의도가 50% 미 만인 경우에는, 역으로 옅은 붉은 막대로 표시함
- 한편, 이와 반대되는 격언인, ‘노력한다고 유전자는 안바뀐다’는 말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응답이 다름
 -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보수층은 50% 이상의 동의도를 나타내 후천적 노력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함
 - 그러나 남자 20대, 4060세대, 중도·진보층은 50% 미만의 동의도를 기록하며 후천적 노력에 긍정적인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노력한다고 유전자는 안바뀐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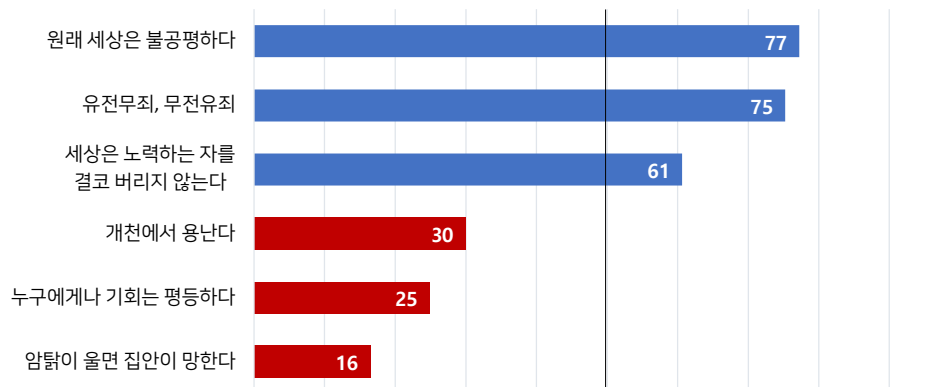
- ☑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출생에 따른 결정론적인 시각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계층이동이 불가능 해졌다는 생각으로 읽힘
 - : 또한 사회고위층에서 심심치 않게 행해지는 이른바 ‘부모 찬스’ 관련 언론보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다만, 20대와 60대 이상은 결정론적인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성/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음
 - : 즉,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 한편, 선천적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2030세대보다 4060세대가 더 동의하는데, 이들은 또한 후천적 노력에 대해 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함
 - : 2030세대는 선천적 능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음(단, 남 자 20대 제외)
- ☑ 마지막으로, ‘개인, 자아 형성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 조사에 활용한 속담.명언.유행어 대부분은 그 의미가 살아있어 앞으로 계속 통용될 것으로 보임
 - : 다만, ‘노력한다고 유전자는 안바뀐다’는 말은 여자 20대와 남녀 30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다른 성/연령에서는 그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사회,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

□ 불공평한 세상으로 생각하면서도 '노력'에 따른 희망 가져

- 우리 국민들의 '사회,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으며,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77%),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고(75%),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에 부정적이고(동의도 30%),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임(동의도 25%)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50% 기준선임
- 다만,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는 61%가 동의함
- 한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여성차별적 주장에 대한 동의도는 16%에 불과함

'사회,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 관련 속담 등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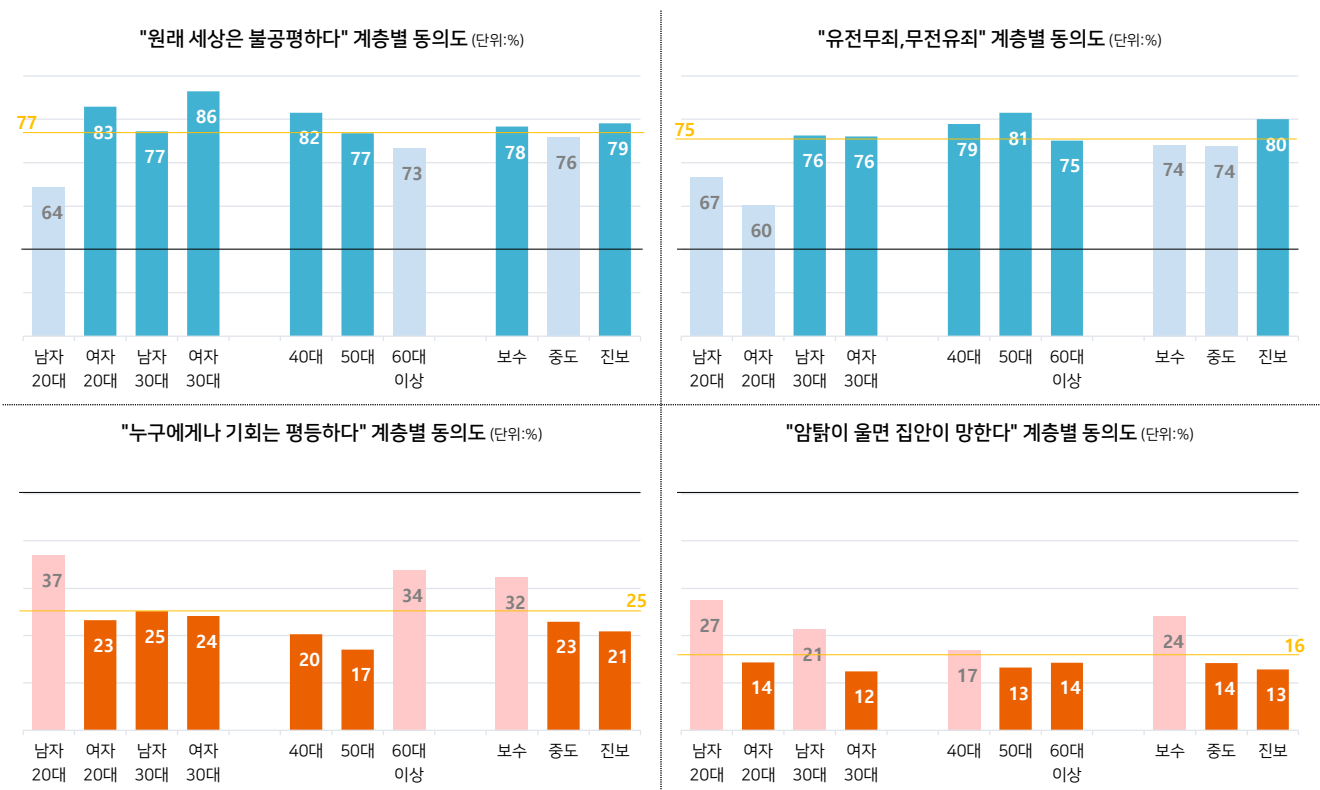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출생 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결정론적인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임
 - : 세상은 불공평하고('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동의도 77%),
 - : 정의롭지 않으며('유전무죄, 무전유죄' 동의도 75%),
 - :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다' 동의도 25%)
 - : 계층이동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개천에서 용난다' 동의도 30%)
- ☑ 하지만 국민들이 희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동의도 61%

□ 모든 계층에 걸쳐 사회인식 부정적 / 2030여성, 성차별 민감

- 세상 또는 사회인식 관련 격언에 대한 계층별 동의도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응답이 매우 우세함
- 특히 부정적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4050세대, 진보층 등임
 - 이들은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다”는 말에 국민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보임
 - 이에 비해 남자 20대와 60대이상, 보수층은 대체로 국민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기록함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임 / 동의도가 50%이상이면 푸른색 막대,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임 / 또한 동의도가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열은 막대로 표시함. 단, 국민전체 동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역으로 열은 붉은 막대로 표시함
- 한편, 성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에 대한 동의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남
 - 여자 2030세대의 동의도가 특히 낮고, 남자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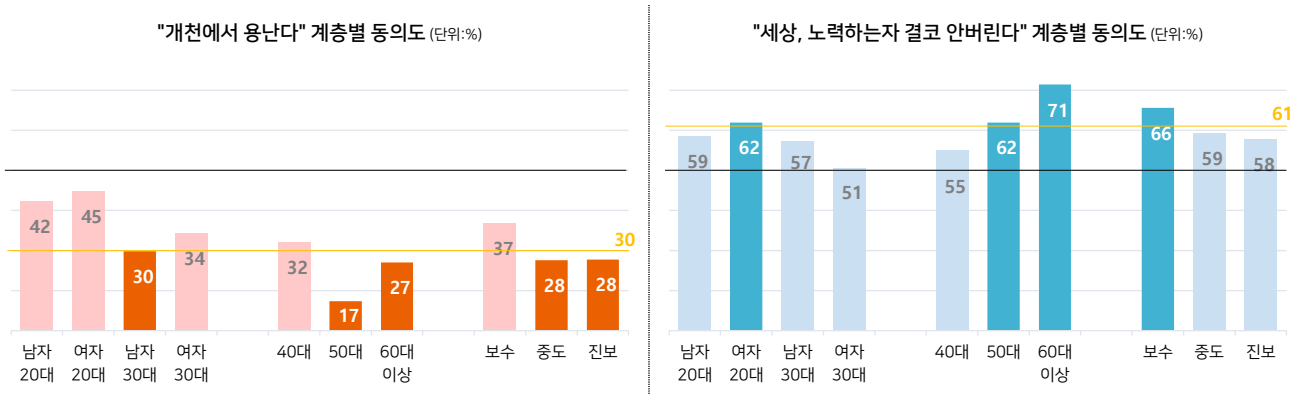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 정의, 기회평등 등 모든 요인에 걸쳐 부정적 인식이 강함
 - :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계층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한 수준임
 - : 근래 들어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제기된 배경도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분석됨
- ☑ 한편, 여성차별의 의미로 사용되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그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보임
 - : 여전히 양성평등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여권이 신장되면서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됨

□ '노력'에 대한 믿음, 60대이상과 보수층 특히 강해

- 계층상승을 의미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에 모든 계층이 낮은 동의도를 표함
 - 국민전체보다 더 낮은 동의도를 표한 계층은 남자30대, 5060세대, 중도·진보층 등임
 - 이에 비해 국민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보인 계층은 남녀 20대, 여자 30대, 40대, 보수층 등임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임 / 동의도가 50%이상이면 푸른색 막대,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임 / 또한 동의도가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열은 막대로 표시함. 단, 국민전체 동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역으로 열은 붉은 막대로 표시함
-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취약한 가운데, ‘노력’을 통한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모든 계층이 50% 이상의 동의도를 나타냄
 - 특히 높은 동의도를 보인 계층은 여자20대, 5060세대, 보수층 등임
 - 이에 비해 여자30대의 동의도는 51%로 겨우 50%를 넘음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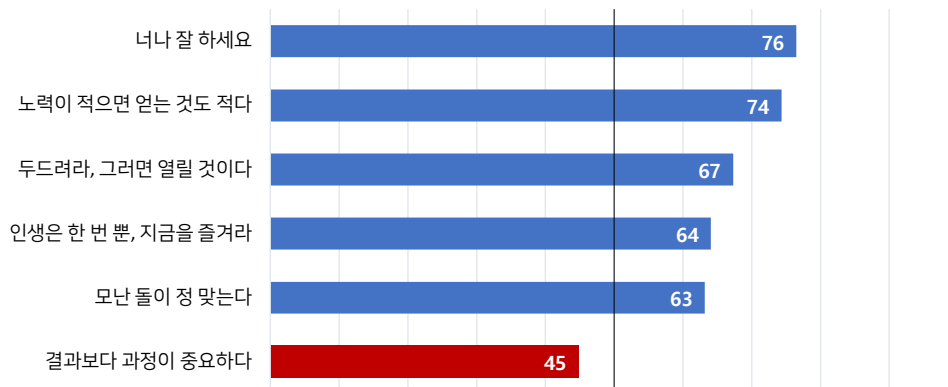
- ☑ 우리 국민들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고, 이러한 시각이 유지될 경우 사회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됨
 - : 현재는 공평, 정의, 평등, 계층상승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 신뢰가 취약함
 - : 이렇듯 사회적 신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 미래를 위한 개혁(연금개혁이 대표적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 다만, 우리 국민들이 ‘노력’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 아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국민의 61%가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을 인정하고, 계층별로도 전 계층에서 동의도가 50% 이상임
- ☑ ‘사회,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 조사에 활용한 속담.명언.유행어 중 3개는 그 의미가 퇴색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개천에서 용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을 사용할 경우,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사회생활(처세)에 대한 생각

□ 다양한 사회생활 규칙들, 복합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 우리 국민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전통적인 규칙에서 최신 규칙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규칙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들인 ‘노력이 적으면 얻는 것도 적다’는 말에 긍정하고(74%),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에 대해서도 동의하며(67%),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동의함(63%)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비교적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인 “너나 잘 하세요”에 동의하고(76%), “인생은 한 번 뿐, 지금을 즐겨라”는 말에도 동의함(64%)
- 다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격언에 대한 동의도는 45%에 그침

‘사회생활(처세)에 대한 생각’ 관련 속담 등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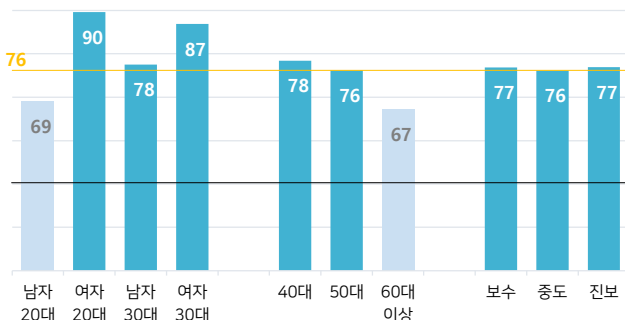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생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상황에서, 실제 사회생활을 할 때의 규칙은 복합적인 양상임
 -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과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
- ☑ 나아가 그 의미가 충돌하는 규칙도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
 - : ‘노력이 적으면 얻는 것도 적다’와 ‘인생은 한 번 뿐, 지금을 즐겨라’는 대립되는 규칙이지만 둘 다 높은 수준의 동의를 기록함
 - : 사회적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 자체가 마련되지 못한 채, 모순적인 규칙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보임
- ☑ 한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격언에 대한 동의도가 45%에 그쳤는데, 이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의미임
 - :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규칙들이 광범위하게 혼용된 채 유통되면서, 규칙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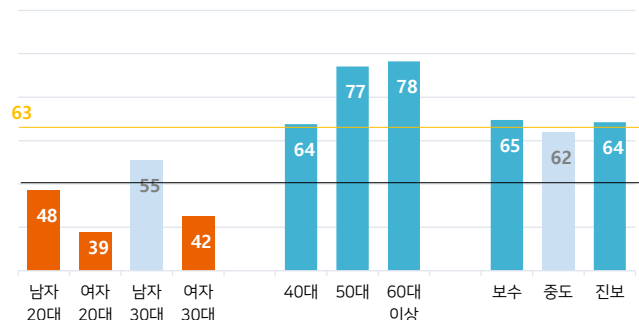
□ 성/연령별 규칙 동의 수준 다르고, '규칙 공유' 생각 낮아

- 처세술, 즉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각각의 규칙에 따라 계층별로 다름
-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는 규칙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함
 - 상대적으로 남자 2030세대의 동의수준이 낮지만, 이들도 절대적으로는 높음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임 / 동의도가 50%이상이면 푸른색 막대,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임 / 또한 동의도가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열린 막대로 표시함. 단, 국민전체 동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역으로 열린 붉은 막대로 표시함
- “모난 돌이 정 맞는다”의 경우, 4060세대는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지만, 2030세대는 그렇지 않음
 - 남녀 20대와 여자30대의 동의도는 50%에 미치지 못함
-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60대이상만 53%의 동의도를 기록할 뿐 다른 계층은 모두 50% 미만임
- 한편, 사회생활 규칙을 공유할 생각도 낮은데, “너나 잘 하세요”라는 격언에 모든 계층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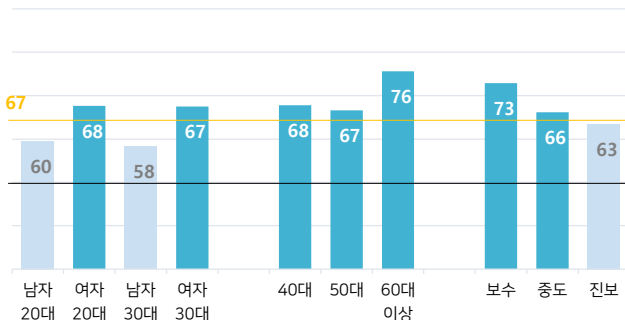
"너나 잘 하세요" 계층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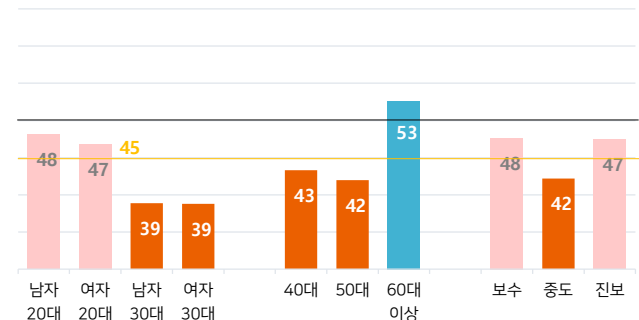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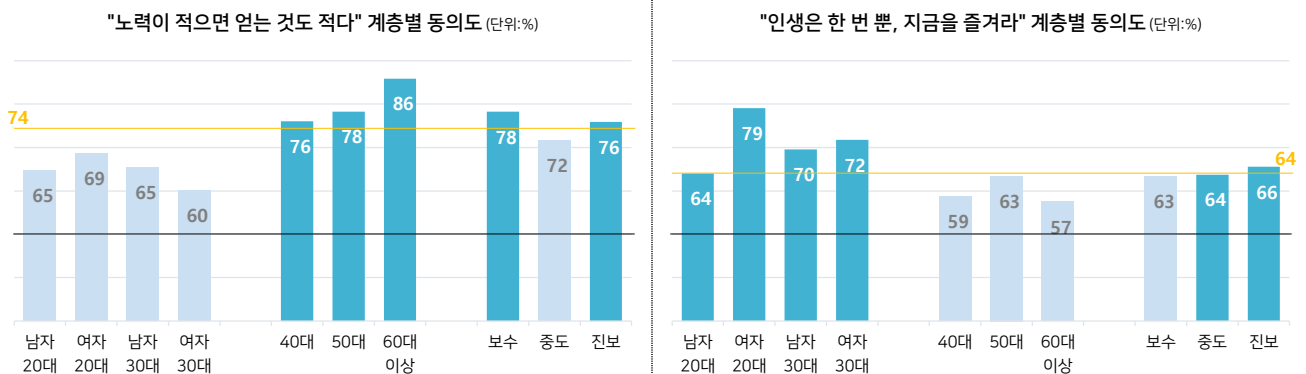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회생활 규칙에 대한 계층 간 공감 및 동의수준이 매우 다양함
 - : 이는 우리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국민들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보다 '각자도생'을 한다는 의미임
 - :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격언에 대한 동의도가 낮는데, 이렇듯 '결과지향적' 태도가 강화되어 있는 것도 '각자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 ☑ “너나 잘 하세요”는 당신의 규칙은 필요없다는 의미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꼰대’와 맥이 닿아있는 냉소적 태도임

□ 현재를 사는 규칙, 모순된 규칙이 함께 통용되고 있어

- 지금 현재를 사는 방법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은 “노력이 적으면 얻는 것도 적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모든 계층이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4060세대의 동의도가 높음
 - 상대적으로 2030세대의 동의도가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60%이상을 나타냄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옅은 막대로 표시함
-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인생은 한 번 뿐, 지금을 즐겨라”는 삶의 규칙은, 앞서의 노력 강조 규칙과 대치되는 규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이 동의하고 있고, 2030세대의 동의도가 특히 높음
 - 전통적 규칙에 익숙한 4060세대에서도 동의도가 높은 수준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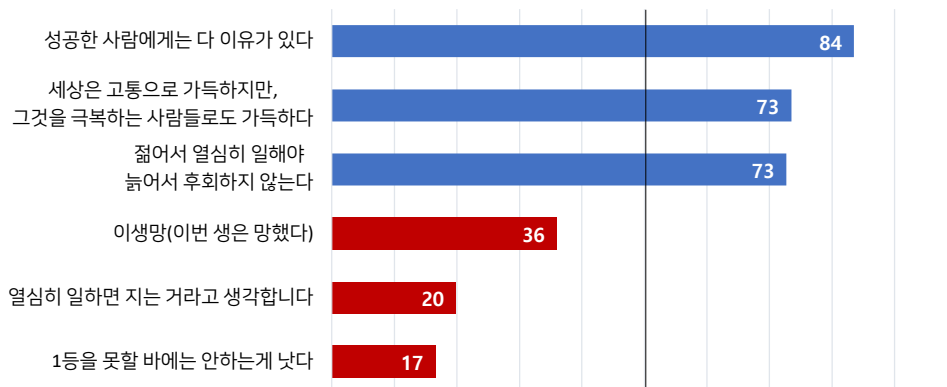
- ☑ 사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들이 복합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모순된 규칙이 함께 통용될만큼 혼란스러운 모습임
 - : 사회생활에 대한 규칙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사회다양성 면에서도 적절치 않음
 - : 그러나 사회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과 그 기준에 대한 토론과 공유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것은(“너나 잘 하세요”) 공동체 약화와 ‘각자도생’ 흐름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 ☑ 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결과만 내면 된다는 ‘결과주의’를 신봉케 하고 있음
 - : 결과만 낼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은 무시해도 되고, 결과만 좋으면 다른 구성원의 피해 여부는 신경쓰지 않게 됨
- ☑ ‘사회생활(처세)에 대한 생각’ 조사에 활용한 속담.명언.유행어 중 1개는 그 의미가 퇴색 중임
 - :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 사회규칙으로서 폐기될 것으로 보임

■ 사회생활 경험 평가

□ 부정적 평가보다, 긍정적 평가 확고한 우위

- 우리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한 이후, 그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부정적 평가에 해당하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에 대한 동의도가 낮고(36%), “열심히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도 역시 낮으며(20%), “1등을 못할 바에는 안하는게 낫다” 동의도도 매우 낮음(17%)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50% 기준선임
- 반대로 긍정적 평가인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에 동의하고(84%),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고 생각하며(동의도 73%),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함(동의도 73%)

'사회생활 경험 평가' 관련 속담 등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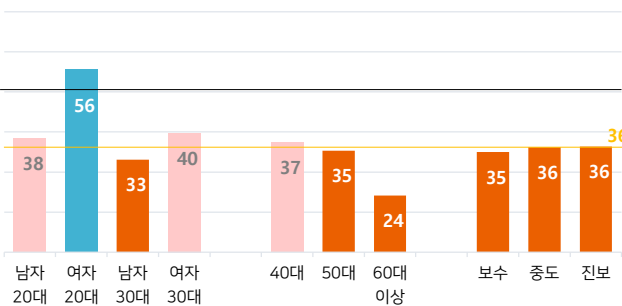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생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실제 사회생활 규칙이 혼란스러운 양상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강함
 - : 우리 국민들은 “이생망”이라며 삶의 동력을 포기하거나, “열심히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최선을 다하기를 그만두거나, “1등을 못할 바에는 안하는게 낫다”는 생각으로 의욕을 버리는 것과 거리가 있음
 - : 오히려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며 이유를 찾고,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특히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키우고 있음
- ☑ 다만, 이러한 사회생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임
 - : 사회생활 경험 평가 이전 항목들(개인, 자아 형성에 대한 생각 / 사회,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 / 사회생활(처세)에 대한 생각 등)이 부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경우,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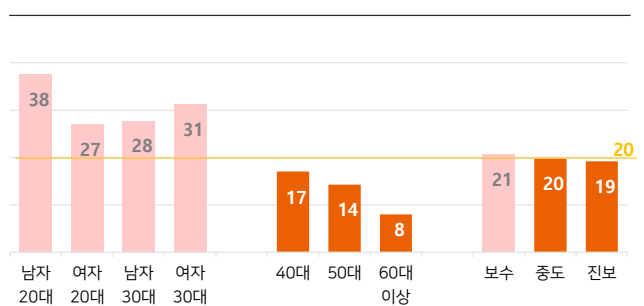
□ 사회생활 경험 부정평가,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사회생활 경험에 대한 부정적 격언들은 모두 2030세대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된 것들임
 -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비롯해 “열심히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을 못할 바에는 안하는게 낫다” 등은 사회생활을 경험한 2030세대의 자조적인 평가들임
- 그러나 이들 부정적 평가 격언들에 대한 동의도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낮게 나타남
 - “이생망” 하나만 여자20대가 56%라는 높은 동의도를 기록했을 뿐 다른 부정적 평가 격언들에 50% 이상의 동의도를 표한 계층은 없음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임 / 동의도가 50%이상이면 푸른색 막대,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임 / 또한 동의도가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옅은 막대로 표시함. 단, 국민전체 동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역으로 옅은 붉은 막대로 표시함
- 다만, 모든 부정적 평가 격언들에 2030세대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4060세대의 동의도는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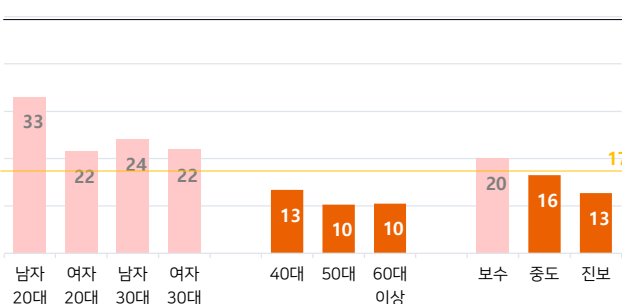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열심히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1등을 못할 바에는 안하는게 낫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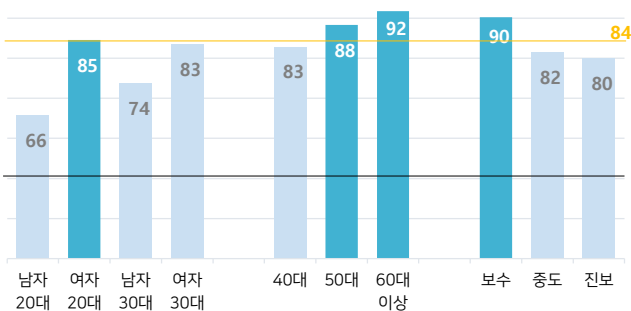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들은 사회생활 경험 후 부정적 평가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만큼 이들이 경험한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으로 분석됨
 - : 4060세대의 경우 ‘성장 시대’를 경험했으며, 이때의 긍정적 경험이 지금까지도 유지됨
 - : 이에 비해 2030세대는 ‘성장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저성장 시대’의 각종 부작용만을 접함에 따라 부정적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음
- ☑ 하지만 여전히 2030세대의 부정적 평가 동의도가 50% 미만인 것을 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희망적인 신호로 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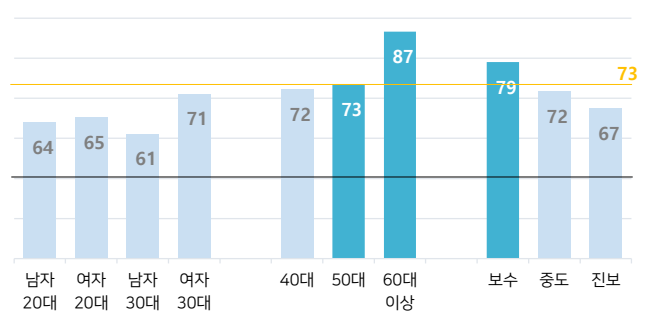
□ 사회생활 경험 긍정평가, 5060세대 특히 높아

- 사회생활 경험에 대한 긍정적 격언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들임
 -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와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늙어서 후회 안한다” 등은 전통적 격언들임
 - 또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는 헬렌 켈러의 유명한 격언임
- 이들 긍정적 평가 격언들에 대한 동의도는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특히 5060세대와 보수층은 모든 격언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함
 - 그림에서 가로 검은선은 50% 기준선이고, 노란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임 / 동의도가 50%이상이면 푸른색 막대,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임 / 또한 동의도가 국민전체보다 낮으면 옅은 막대로 표시함. 단, 국민전체 동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역으로 옅은 붉은 막대로 표시함
- 이에 비해 2030세대의 동의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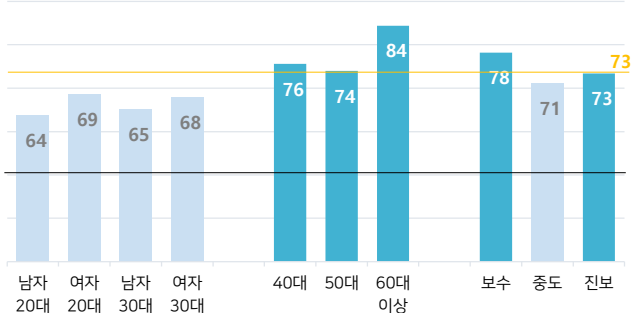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늙어서 후회안한다" 계층별 동의도 (단위:%)



"세상 고통스럽지만, 극복 사람들로 가득" 계층별 동의도 (단위:%)



Kstat Point

- ☑ 사회생활 경험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적으로 낙관적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2030세대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들이 부정적 평가 우위로 전환되기 전에 보다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임
 - : 특히 불공평, 부정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 '사회생활 경험 평가' 조사에 활용한 속담.명언.유행어들은 모두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긍정적 격언은 동의도가 높기에 생명력이 있고, 부정적 격언도 2030세대의 동의도가 적지 않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6, 6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6호와 67호는

각각 2023년 1월 12일(목요일), 1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1월 사회지표는 1월 1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